

서울시의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글로벌 전략

김석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장

국내 건축업계 현황 및 진단

21세기 도시 경쟁력은 단순한 경제성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을 형성하는 요소는 생활공간의 질, 문화적 자산, 그리고 창의적 디자인 역량이다. 그중에서도 건축은 도시의 ‘얼굴’이자 사회적 가치 구현의 핵심 매개체이다. 세계 주요 도시는 자국 건축가를 육성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통해 도시의 위상을 높여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25년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단순한 건축 행정의 차원을 넘어 서울을 ‘창의·혁신 플랫폼이자 글로벌 건축문화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려는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다.

한국 건축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른 성장과 국제적 경험을 축적해 왔으나, 여전히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국내 건축사무소의 87.5%가 5인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해외 대형 건축사무소와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국제 설계공모에서는 해외 유명 건축가가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해 국내 신진 건축가들의 기회가 더욱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언론은 ‘신진 건축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업계의 불만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일부 국제공모에서는 해외 건축가와와의 의무적 공동 참여를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실은 서울 건축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건축기행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에 ‘K-건축기행’을 통해 건축가들과 직접 소통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2025년 상반기 'K-건축기행'을 통해 제기된 주요 요구 사항		
구분	주요 요구사항	내용 요약
1	권위 있는 건축상 제정	건축가의 창의적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건축상 마련
2	공정한 공모제도 운영	신진 건축가가 실질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공모제도 운영
3	설계 의도 보장 제도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 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건축가의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시스템 마련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서울시가 수립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은 서울을 세계 건축문화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으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축으로 한다. 각 전략은 단순히 건축가 개인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문화의 혁신과 글로벌 위상 제고를 동시에 지향한다.

서울시는 이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통해 도시 전반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건축가’라는 주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외형적 개선이나 도시공간의 미학적 정비가 아니라, 건축가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을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문화 혁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혁신 건축가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이다. 지금까지 국내 건축가들은 국제설계공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었으며, 해외 유명 건축가 중심의 공모 구조 속에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제설

계공모 당선 시 보상금을 기존 1억 원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하여 참여 부담을 줄이고, 당선 건축가에게는 국내외 전시·홍보 및 공공건축 참여 등 후속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베니스 비엔날레, 시카고 비엔날레 등 국제적 건축 행사에 서울시가 직접 참여하여 국내 건축가와 작품을 홍보하고, 세계건축연맹(UIA) 총회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 ‘K-Architecture’의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서울을 건축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해외 유명 건축가 중심으로 흐르던 공모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혁신 건축가들의 참여와 당선 기회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서울 국제 도시공간디자인상 제정이다. 건축은 도시공간의 일부이자 공공성과 문화성을 담아내는 영역이기에, 서울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국제상’을 제정하여 도시·건축·경관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 이 상은 환경성, 공공성, 도시문화 기여도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시상하며, 202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첫 번째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 상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 재단(가칭 ‘서울건축재단’)을 설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은 단순히 건축상을 시상하는 도시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건축문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주요 도시 및 문화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류 플랫폼을 확대하고, 순회전시와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제 건축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신진 건축가 발굴 및 육성이다. 건축 분

야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고, 공모 절차의 부담이 커서 신진 건축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2단계 설계공모를 도입하여 초기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설계심사 방식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대학생 공모전, 여름건축학교와 같은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예비 건축가 단계에서부터 창의적 인재를 발굴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지명공모, 신진 건축가 제한 공모, 소규모 공공 프로젝트 등 실질적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젊은 건축가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일회성 공모 경험을 넘어 실질적 프로젝트 참여와 포트폴리오 축적을 가능하게 하며, 젊은 건축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넷째, 건축가 존중 및 제도적 지원 강화이다. 지금까지 건축 과정은 시공자나 발주자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설계자의 창의적 기여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착공식이나 준공식 등 주요 행사에 설계자를

초청하여 사회적 존중을 제도화하고, 설계자 실명제를 운용하여 책임성과 명예를 동시에 부여한다. 또한 건축사 대가 기준을 현실화하고, 우수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신진 건축가들이 창업 초기에 겪는 공간·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산된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창의적 설계가 행정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도시·건축 디자인의 일관성과 창의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서울시의 네 가지 전략은 글로벌 진출,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제정, 인재 육성, 제도 기반 강화라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단기적인 이벤트나 단발적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울을 세계 건축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 종합적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 4대 전략, 11대 과제

추진전략	1. 혁신건축가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2. 국제도시공간 디자인상(가칭) 제정	3.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4. 건축가 존중 및 행·재정 지원
핵심과제	❶ 국제설계공모의 역량 있는 국내건축가 참여비율 확대 ❷ 국제행사 공식 참여 및 홍보 ❸ 해외도시 교류 및 통합플랫폼 구축·홍보	❹ 세계도시공간 문화를 선도할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제정 ❺ 지속가능한 전문조직(가칭) 서울건축재단 설립	❻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신진건축가 발굴 ❼ 혁신건축가의 공공기획·설계참여로 건축가 육성 지원 ❽ ‘설계 의도 구현’ 전면 확대	❾ 건축가 존중·지원 강화하여 존중받는 성장 환경 구축 ❿ 창의혁신 디자인 구현 등 제도 개선 ⓫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2025)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구조

서울시는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체계적 실행 관리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 구조의 핵심은 TF(Task Force) 운영과 (가칭) 서울건축재단 설립이라는 두 축이다.

TF팀 운영

서울시는 먼저 부서별 TF팀을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초기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를 탄력적으로 참여시키며, 8월까지의 수시회의를, 이후에는 월 1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점검·조정한다.

이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건축 관련 사업들이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즉 TF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정자이자 실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건축재단 설립

TF 운영이 단기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면, (가칭) 서울건축재단은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하는 구조이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독립법인으로, 이사회와 사무국 체계를 갖추고 민간 후원 및 투자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 전문성이 단절되거나, 행사 성격이 매번 달라지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단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비엔날레, 국제상, 건축상, 전시관 운영까지 전담함으로써 ‘서울건축문화의 상시 운영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행 체계는 단순히 조직을 꾸리는 차원을 넘어 서울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담 조직이 마련되면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이 흔들리던 과거의 문제를 넘어 정책의 연속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이는 한두 해 반짝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건축·도시·경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국내 차원의 행정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서울의 건축정책이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지점을 마련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다. 이번 계획이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단발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축적되는 건축문화 경험이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게 될 것이다. 건축을 단순히 ‘건물 짓기’가 아닌 ‘도시문화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은 베니스 비엔날레나 프리츠커상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세계 건축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기대효과

이번 계획은 국내 건축가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대형 프로젝트는 주로 해외 유명 건축가들에게 집중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내의 혁신적 건축가들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

련되고, 동시에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건축을 단순히 ‘건물 짓기’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국제 전시, 공모전, 비엔날레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년 이어짐으로써 시민들은 건축문화를 생활 속에서 향유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는 건축이 도시공간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화 자산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도 시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건축문화 확산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며, 업계의 실천적 노력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벽한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서울은 단순히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혁신 건축가를 배출하고, 글로벌 건축 담론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더불어 공정한 심사체계로 국제적 권위를 확보하고,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며, 시민 체감도를 높일 경우 한국 건축가를 세계 건축계의 당당한 파트너로 부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K-건축’ 자체가 한국 건축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미래 K-건축에 대한 기대

궁극적으로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은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이 세계 속에서 각광받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더해 K-건축을 새로운 K-컬처의 축으로 자리하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은 더 이상 세계 건축의 흐름을 뒤따르는 도시

가 아니라, 글로벌 건축 담론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머지않아 미래에 K-건축문화가 세계를 대표하는 K-컬처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서울특별시, (2025),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 기자설명회 자료.